

# ‘한국 알리기’는 아직도 우물 안

전문출판, 정부관심 부족... 서점 진열도 일관성 없어

바야흐로 지구촌을 실감하는 시대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부쩍 늘었다. 웬만한 대형서점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외국어판 책들을 따로 모아 전시하기도 한다. 과연 이 책들이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언어권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단순한 관광안내에 불과한 사진집이 대부분이라는 점, 한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은 외국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다. 세계화의 구호 속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Books on Korea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한국을 알리는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웬만한 대형서점에서는 외국어로 한국을 소개한 책자를 따로 모아 놓은 ‘Books on Korea’ 코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책들은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한 가이드류부터 한국의 특수한 분단현실을 심도 있게 다룬 논문류까지 그 종류와 주제가 다양하다.

## 한국의 특징적 문화양상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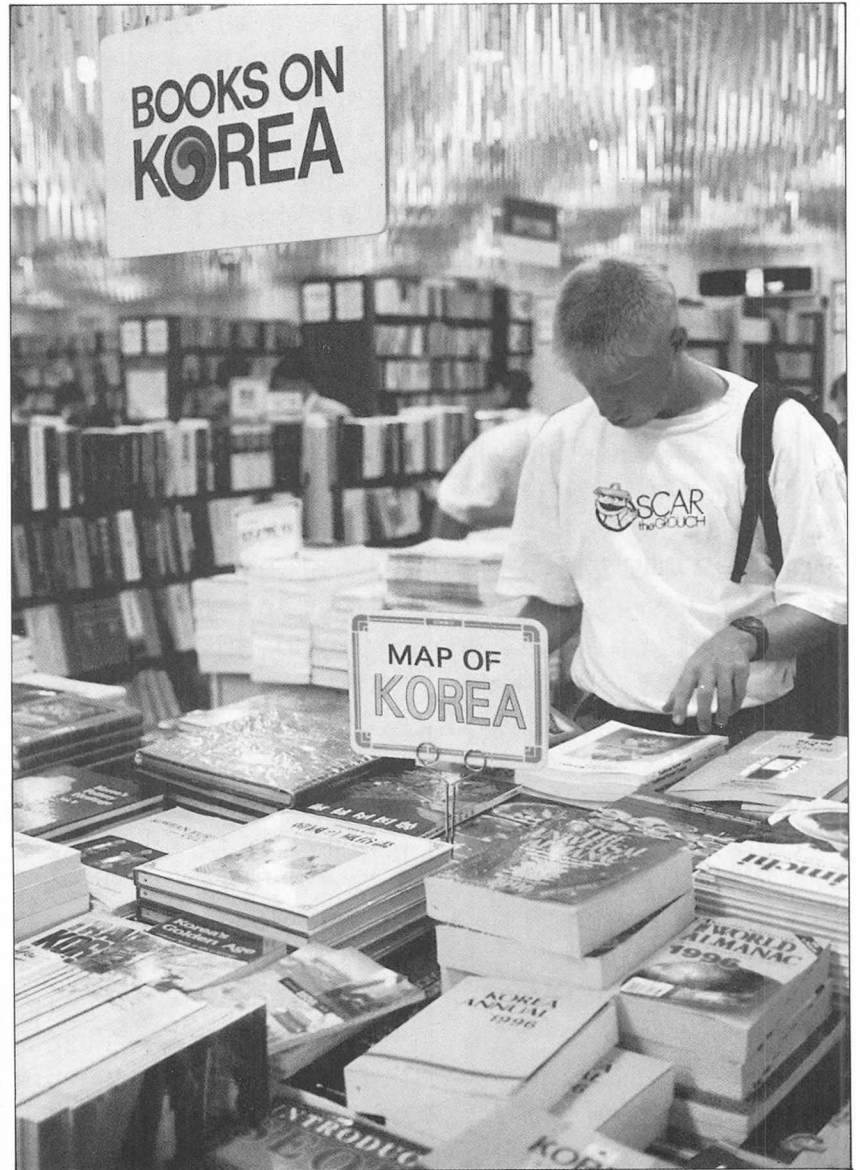
한국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사진 중심의 가이드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다. 특이한 한국만의 풍경이나 풍물을 사진 중심으로 담아냈는데, 최근에는 지역 별로 나누어 사진보다는 깊이있는 내용을 담으려는 추세다. 특히 불교적 특수성과 역사성이 함께 살아 있는 경주, 외국의 어떤 관광지에 비교해도 아름다움이 뒤지지 않는다는 제주도, 500년 이상 한 나라의 수도를 유지해온 서울지역 등은 단골 메뉴다. 한국의 수준 높은 건축이나 고미술품을 사진에 담아 소개 한 책자도 눈에 띈다.

한국을 알리는 책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던 데서 차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접근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굿, 김치, 태권도, 인삼 등 한국만의 특징적 문화양상을 골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좀더 다양한 문화로서 한국에 접근하는 책들이 늘어났다.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독특한 유교의식·사상, 샤머니즘에 접근함으로써 한국의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는 한 민족의 지배적인 의식세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책들 역시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분단현실이나 판문점, 북한학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점은 세계에 단 하나 뿐이라는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들 책은 대학출판부 중심의 전문적 논문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외국인들이 쉽게 접어들기는 어렵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관련 책도 눈길



대형서점의 한국관련책 코너. 아직 분야가 다양하지 못해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을 끈다. 한국의 자연이나 한국적인 사물을 사진에 담은 이들 책은, 외국인들이 어떤 것에서 한국을 느끼는지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에의 사진집은 외국인에게나 한국인에게나 잘 알려진 책이다. 프라이에의 사진집은 문이나 담, 한국인들조차 쉽게 지나치는 사물에 관심을 기울여 외국인이 느낀 한국의 이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전문출판사 태부족

역사적 경험과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외국인이 한 나라의 문화나 생활을 이

해하는데는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일 터이지만, 단지 한국관광이 목적이거나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얻는데는 책만한 수단도 없다. 점차 다양한 주제와 수위의 해외판 책이 나오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전문출판사가 부족한 점, 정부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서점의 체계 없는 진열로 원하는 책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불만사항이다.

—이현주 기자

나의 생각

##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출판사의 고민

박찬수 · 한림출판사 편집장

1963년 ‘문화산업을 개척한다’는 기치 아래 설립된 한림출판사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해외판 도서 간행사다. 처음에는 번역물을 주로 내는 ‘서구사’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일어판과 영어판을 합해 100여권 정도의 책을 내놓았다.

33년이라는 경륜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졌으나 어려움은 여전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나 기업차원의 물적·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문·일문판 책의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안되고, 일반 서점에는 배포조차 할 수 없으니 수지가 맞지 않는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외국어 책을 출간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출판사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을 알리는 책은 사진 중심의 관광가이드가 아니면 외

국의 한국학 학자들을 위해 소량 찍어내는 대학출판부의 논문이 전부다. 양극단의 책들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한국의 역사와 예술, 문화 등을 대중적으로 다룬 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실이 이러니 국제 도서전에 가지고 나갈 책 한 권이 변변히 없다.

정부, 기업, 출판사가 3박자를 이뤄야 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수요층을 위해 한의학·의상·미술 등 분야별 출판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중이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외판 도서를 간행하는 출판사가 믿는 것은 한국을 알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과 자부심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의욕적인 시도나 해외판 도서의 활발한 출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출판사의 생각이다. ❖

##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은 나라, 한국

로버트 할리 · 국제변호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선교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 거의 10년이 돼가지만, 한국을 알기엔 아직 먼 듯하다. 한국에 관한 책으로 맨 처음 《삼국유사》 영역본을 읽었지만 그 역사와 신화를 이해하기엔 미국문화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만 깨달았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한국에 와서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늘 필요하다. 하지만 시내 대형서점 외에는 외국어 책을 찾아볼 수 없거니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알아야 할 내용을 꼼꼼하게 알려주는 책은 거의 없다. 사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엄청난 곳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꾸려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정보외에도 ‘한국’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책도 별로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차차 한국어에 익숙해지면서 한글로 된 책을 읽어보려 했지만 끝까지 읽은 책은 많지 않다. 그나마 문학류가 한국을 좀더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다. 최인호의 《고래사냥》을 처음으로 끝까지 읽었는데 이야기도 흥미로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최초의 한국 책으로 기억한다.

아직도 한국은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은 나라이다. 한국을 알게 해주는 좀더 다양하고 섬세한 책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

### 서점에 나와 있는 ‘한국을 알리는 책’들

구분	책 이름	지은이	펴낸곳
가이드	Korea-A Comprehensive Guide Korea Guide Sightseeing Guide to Korea Korea-A Sensory Journey A Trip through Historic Korea Facts about Korea Korea	한상태 에드워드 아담스 안옥모 마르크 바랭 외 하태홍 한국정보서비스 로버트 스토리 외	상회출판사 서울 인터내셔널 집문당 우진출판사 연대출판사 한림출판사 론리 플래닛
생활양식	Living in Korea Annual Customs of Korea Korean Customs and Etiquette 영어회화로 읽은 한국과 한국의 전통 Culture Shock, Korea	리처드 루시 조상수 양승목 최은경 벤 승화 허 외	암창 서문당 상회출판사 한국문화사 코리아 타임즈
한국인의 정신	서울설화 Korean Identity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Korea's Self Identity Notes on Things Korean Folk Tales of Korea	김기혁 이동골 외 최상진 외 홍이섭 수잔 크라우더 한 정인섭	범우사 연합뉴스통신 동아출판 연대출판부 한림출판사 한림출판사
역사	A Panorama of 5000 Years A History of Korea Korea's Golden Age	앤드류 남 한우근 · 이경식 에드워드 아담스	한림출판사 유희문화사 명화사
문화	Korean Culture Korean Ancient Palaces Confucian Rituals in Korea 경주 남산 Korea's Cultural Roots 우리 삶 우리 놀이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이경희 신영훈 외 스펜스 J. 파머 윤경렬 존 카터 코벨 최우일 박명석	코리아 헤럴드 열화당 보진재 불지사 한림출판사 단국대출판부 한신
정치·사회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 The Problem of Korean Unification Korea and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Modernization vs. Revolution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The Points of Departure DMZ Korea in a Changing World	임용순 한표욱 김현동 김승환 가드윈 쉐 박봉식 외 권대봉 라종일 웨이인 A. 커크브리드 한성주	서울컴퓨터프레스 / / / 성대출판부 세종연구소 서울컴퓨터프레스 예진출판사 한림출판사 오름
사진집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 Korea beyond the Hills 한국, 그 내면과 외면 Korea-Scenic Beauty and Religious Landmarks Traditional Korean Lifestyles 한국의 국립공원 금강산의 사계 Korea : A Pictorial Guidebook	이규현 에드워드 김 마크 드 프라이에 마크 드 프라이에 프리츠 보스 강병규 국립공원관리공단 구보타 히로지 수잔 크라우더 한	서문당 유희문화사 행림출판 독일 삼화문화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을지서적 한림출판사
기타	Geology of Korea Early Humans in the Korean Peninsula Critical Issues in Neo-Confucian Thought Women of Korea Challenges of Women Dynamic Taekwondo Koreans to Remember Kut : Korean Shamanist in Korea Who's Who in Korean Literature Practical Korean Cooking	이대성 변주나 윤사순 김영정 정세화 이경명 리처드 새큰 헬라 패 홈 한국문화예술재단 노진화	교학사 현암사 고대출판부 이대출판부 / 한림출판사 / / /